전동평 3선 맞서 후보군 경쟁 과열

영암군수

전동평

박소영

배용태

우승희

이보라미

임대현

전동호

조성남

영암군수 선거에는 전동평 군수의 3선 도전에 맞서 7명에 달하는 후보군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최연소 전남도의원으로 4선(4~7대)의원을 지낸 전 군수는 다양한 현안사업을 큰 무리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다.

전 군수에 맞설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는 전동호 전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이 꼽힌다.

명예퇴직 후 영암군수 선거전에 뛰어든 전 전 국장은 정치신인으로 분류돼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영암 서호면 출신인 전 전 국장은 1986년 화순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광양청 개발부장, 여수시 산단환경사업단장,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등을 역임했다.

건설 교통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도로·철도·항공 등 지역 주요 SOC 사업과 국고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 및 지역 계획을 반영하는데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영암부군수, 광양부시장, 목포시장 권한대행,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장 등 중앙·지방 요직을 거쳐 정부 부처와 정계의 풍무한 인맥을 자랑한다.

전남도의회 유일한 정의당 소속 지역구 의원인 이보라미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밑바닥 조직이 탄탄한 것이 장점이다.

재선인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민주당 전남도당 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11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냈다.

임대현 전 감사원 감사관은 현재 민주당 전남도당 경제정의실현특별위원장과 4050특별위원회 미래분과 고문을 맡고 있다.

선거 출마를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성남 세한대 교수는 전남도 문화재위원과 전남도발전정책자문위원회를 맡고 있으며, 전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과 전남도공공디자인위원등으로 활동했다.

행정 전문가로서 지난 39년 동안 현장을 누빈 박소영 전 목포시 부시장직무대행도 출사표를 던지며 지역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영암에서 공직을 시작한 박 전 부시장직무대행은 목포시로 자리를 옮겨 최초여성국장, 기획관리국장, 안전행정복지국장, 상하수도 사업단장과 관광기획과장 등을 거쳤다. 탁월한 리더쉽으로 광범위한 행정 전 분야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길용현·영암 최복섭 기자

무소속 정종순 복당 카드 만지작

장흥군수

정종순

곽태수

김성

김순태

사순문

신재춘

조재환

장흥군수 선거는 현직인 정종순 군수가 또 다시 이변을 연출할지가 관심사다.

정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박병동 민주당 후보를 3.3%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최근 5차례 치러진 장흥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는 4차례 당선됐다.

정 군수는 '군민이 행복한 장흥'을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민선 7기 119대 전략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가감점 적용으로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던 김성 전 군수도 절치부심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사순문 전남도의원과 곽태수 전남도의원도 선거 출마를 위해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사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통일부장관 보좌관을 지냈으며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곽태수 의원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과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의 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중앙부처 출신인 김순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행정 경험과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순태 부의장은 국무총리실과 중소벤처기업부,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 32년간의 중앙부처에서 두루 실무를 경험했다.

조재환 전 서기관도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행정학 박사인 조 전 서기관은 대학강단에서 10여년 간 행정학과 정책학을 강의하는 등 현장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또 40여년간 장흥군청에서 몸담아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행정사 사무실을 개업해 1,000여건에 이르는 지역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는 등 현장 밀착형 소통행정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30여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며 지방행정을 섭렵한 신재춘 전남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남도 규제개혁추진단장·세정팀장·인사팀장·감사팀장 등을 역임한 신 보좌관은 공직자 시절 행정능력과 추진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다만 최근 민주당 중앙당이 탈당 인사들의 일괄 복당을 허용하는 '대사면'을 결정하면서 정 군수가 복당을 고심하고 있어 후보들의 셈법도 덩달아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정 군수는 "민주당에서 탈당 경력에 대한 페널티를 없앤다면 복당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정당이나 인물 못지 않게 주민과의 접촉 빈도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후보군들이 현 군수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길용현·장흥=이옥현 기자

선거법 위반 의혹 전·현직 경선 치열

강진군수

이승옥

강진원

서채원

강진군수 선거는 이승옥 현 군수와 강진원 전 군수, 서채원 전 광주시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던 강 전 군수는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신인 가점 10%를 얻은 이 군수에게 석패했다.

이 군수가 현직 프리미엄을 갖춘 상황에서 4년 만에 이뤄질 전·현직 군수 간 리턴매치는 군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탈당 페널티를 없앤 상황에서 강 전 군수는 지난 9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로써 다음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을 불식시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진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승옥 군수는 전남도 행정자치국장과 문화관광국장, 여수 부시장 등 35년 간 다양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선 7기 공약 추진율도 지난 6월엔 77%를 기록하며 임기 내 이행 완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강진산단 100% 분양 성공을 발판삼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진산단 인근 35만㎡ 부지에 3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제2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탁월한 친화력으로 주민들과 소통도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홈페이지에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 추진현황을 상시 공개해 소통 행정에 앞장서고 지난 2020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일자리·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설 주민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변인들이 수사 및 피의자로 입건되고 있어 다음 지방선거까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행정고시 출신인 강 전 군수는 밑바닥 민심을 다지며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20여년 간 중앙부처와 전남도 주요 보직을 거친 행정 전문가인 강 전 군수는 재임 당시 국비와 도비 확보액 2년 연속 1,000억원·사상 첫 군예산 4,000억원 돌파 등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

현안 해결을 위해 적재적소 맥을 짚어내는 등 매끄러운 군정운영도 돋보인다는 평이다.

스포츠 테마파크 등 재임 기간 '관광 강진'의 지명도를 높이는 등 강진을 전남 중서부권 중추지역으로 이끌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협회와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농어촌 단체장 역량 만족도 1위'에 오르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전남도 기업혁신단장과 장흥 부군수를 역임한 이후 퇴직한 강 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를 포함해 강진군수 선거 본선과 민주당 경선에 총 4번 도전했다.

서채원 전 시의원도 출마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시의원은 강 전 군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서 전 시의원은 부의장을 맡아 농어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에 힘쓰고, 사회복지정책 공약개발을 하며 지역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또 지난달 27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전남도당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로인해 이번 강진군수는 민주당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찬기·강진=한태선 기자

명현관 군수 우세 속 예선전 관심

해남군수

명현관

김병덕

이길운

해남군수 선거는 현직인 명현관 군수가 다른 출마 예상자들에 비해 다소 우세한 지형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다.

전남도의회 재선 의원을 역임하며 의장을 거친 명현관 군수의 지난 3년 간의 군정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명 군수는 청렴한 이미지와 민선 7기 군정 운영 성과를 토대로 재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명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은 91.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명 군수는 취임과 함께 민선 7기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을 비전으로 5대 전략 65개 공약을 확정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해 공약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명 군수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이 전남도와 전북도 등 광역지자체로 확대됐고 직영쇼핑몰 '해남미소' 설립과 아열대과수 연구의 거점 '전남도 과수연구소 유치, 어촌뉴딜300 등 굵직한 성과도 냈다.

또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100% 분양과 롯데렌탈 유치,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등에서 현안 해결 능력을 보여 2019·2020·2021년 매니페스토 최우수등급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한 명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군수에 당선됐다.

이후 민평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아 있던 명 군수는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은 2020년 9월 '복당 감점'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면서 탈당 경력자의 선거 진출을 사실상 막았지만, 명 군수의 복당은 인재영입을 위한 당의 요청으로 '특별복당허용' 형태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향후 선거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탈당 경력자에 적용되는 25% 감점도 받지 않게 된다.

명 군수의 재선 도전에 맞서 이길운 전 해남군의회 의장은 리턴매치를 벼르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선 명 군수에게 패하며 고배를 마셨지만 탄탄한 조직력을 토대로 지역 표심을 모으고 있다.

3선 군의원에 군의회 의장을 지내 지역사정에 밝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과 전남배구협회 부회장, 해남배구협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인지도를 넓혀 왔다.

오랜 기간 정가에서 활동하며 쌓은 풍부한 인맥과 인지도가 최대 강점인 이 전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해남군의원 재선의 김병덕 현 해남군의회 의장도 해남군수 선거전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의회 부의장에 이어 하반기 의장을 맡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군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선과 같은 치열한 예선전이 치뤄질 전망이다.

/길용현·해남=박병태 기자

신우철 3선 도전 지방의원·관료 출사표

완도군수

신우철

김신

박인철

신영균

이철

완도군수 선거는 신우철 현 군수가 지방의원·행정관료들의 도전에 맞서 3선에 나선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무난히 당선됐던 신 군수가 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 군수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과 진도부군수를 역임했으며 완도 수산고 총동문회 회장을 지냈다.

신 군수는 정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돼 역대 최다인 1,03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해양치유산업 집중 육성, 완도수목원의 국립난대수목원 승격 등을 이끌어 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3선 달성은 무난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당 안팎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내 경쟁 상대로 이철 전남도의원과 박인철 완도군의원, 신영균 전 완도군 경제산업국장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인 이철 도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완도수산고 실습선 건조와 완도고 답안지 유출 문제 등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집행부를 지적하는 등 눈에 띄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완도군의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인철 군의원은 완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되는 등 정치적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군의원은 완도수산중·고에서 총동문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완도 출신 신영균 전 국장은 1986년 완도군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후 전남도청, 국무총리실 등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행정부처 내 인맥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신 전 민생당 군의원도 완도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완도군 재선 의원인 김 전 의원은 전남지구청년회의소 회장과 전남서부어류양식협회 회장을 맡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신 후보는 49.05%를 획득해 신우철 후보 50.96%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하지만 과거 국민의당에서 탈당해 민주평화당에 입당한 전력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지영배 지방부이사관도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선우·완도=최규욱 기자